

文정부 초반부터 전운 감도는 정치권

총리 청문회·10조 일자리 추경 등 난제... 임시국회 난항 예고 한국당 "독주 막겠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협력·견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일정이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야당들은 협치를 전제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강력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된 인사에 대해선 벌써부터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는 이날 오전 대선 후 처음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정하고 협치를 다짐했다.

6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로 정했으며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6월 임시국회를 순조롭게 넘길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는 24~25일 열리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등 국회를 넘어야 할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이 세월호 참사, 정운하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을 내세우면서 국회의와의 협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하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에서 "다른 야당들이 지금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면서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한국당만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강력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초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입장이

인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도움을 내심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강력한 견제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캐스팅 보트정당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이 무리하게 개혁 과제를 밀어붙인다거나 야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어깃장을 놓는다면 6월 임시국회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과 성의있게 대화하고 협치에 나서는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이 순항할 수도, 아니면 파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권의 협조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난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여권이 얼마나 정밀하게 협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냐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9대 대선 뒤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정부 국정 과제에 지역현안 반영 노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도정공백 최소화 주력할 것”



국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갑섭(사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역 현안과 대선공약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지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전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여간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도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민선 6기 도정발전 구상을 토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언급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그는 “부족하지만 변화하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섬 가꾸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기존 사업과 전남형 복지모델인 서민 시책 추진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04년 고(故) 박태영 전 지사 유고 이후 처음이자, 최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별도 보궐선거 없이 차기 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까지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6월부터 자동차세·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

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도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한 ‘지진 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

이 중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건축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양만 묘도 LNG 허브터미널 최적지”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장 주장

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 광양만 묘도에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광양만 묘도에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을 구축해야’라는 주제의 ‘광전 리더스 INFO’에서 “기존의 여수 오일 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묘도에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 LNG 수요는 약 2억5300만톤으로 아시아

지역은 세계 수요의 약 70% 소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중·일 동북아시아가 세계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헨리 허브 등과 같은 거래시장이 없어 가격이 수요공급을 따르지 않고, 원유가격 연계 및 PNG 등 대체가스의 부재로 ‘아시아 할증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양만 묘도의 LNG허브터미널 적합성으로 준설토 매립장의 넓은 부지와 확장가능성의 우수,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강조했다. 광양만 권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연관 산업 개발의 용이성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새 정부 일자리정책 선제 대응

오늘 20개 고용기관 참여 회의

매월 일자리창출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16일 일자리 창출 점검과 협력을 위한 고용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연다.

윤장현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 부시장, 김진형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지역철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20개 기관 소속 3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추진 사항 점검과 유관기관 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경제 고용 동향과 일자리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일자리대책 현황

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향후 일자리 중심의 시장 운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기여도를 부서 평가와 예산편성에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매월 시장이 주재하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노인고용 등에 복지 일자리, 전라산업과 투자유치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보고회도 열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향기·사랑·꿈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7회 곡성 THE 7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세계장미축제

2017.5.19(금)-28(일) / 10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 ▶ 장미향 시가지 퍼레이드 5. 20(토) 2시
- ▶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 5. 26(금)
- ▶ 水타크래프트(장미전쟁-물총놀이 2시)
- ▶ 작은 결혼식(프리웨딩) 주말
- ▶ 장미별장 작은영화관 저녁 7시
- ▶ 외국인 길거리 퍼포먼스 주말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7회 곡성 THE 7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세계장미축제

2017.5.19(금)-28(일) / 10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의회 GOKSEONG COUNTY COUNCIL
www.gokseong.go.kr/tour/
안내·문의 (061)360-8252(관광문화과)